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5월 8일
제1895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 10,27-30)



〈착한 목자〉, 필리프 드 샹파뉴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다해)

제 1 독서 사도 13,14.43-52 |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화답송 시편 100(99) |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제 2 독서 묵시 7,9.14L-17 | 어린양이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요한 10,27-30 |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복음 묵상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 가득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6,35 참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 “나는 참포도나무이다.” (15,1 참조) 등. 이 수많은 자기 계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나는 착한 목자다.”(10,11)라는 선언에 뒤이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착한 목자로 계시하시며 당신과 목자인 그분을 따르는 양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서는 니코데모와 나눈 대화에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3,15)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바치십니다. 착한 목자에 대한 담화 가운데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10,11)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느님 아버지와 동일한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신 분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위하여 그 신적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바치는 목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과의 관계성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의 정체성도 설명해 줍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특별히 사제와 수도 성소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모든 이가 받은 성소, 곧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부르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성찬례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박문수 막시미노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성화 해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요한 10,27-28)

지팡이를 들고 양을 메고 서 있는 착한 목자 예수님은 3세기경 로마의 카타콤베에서부터 나타난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을 피난처로 삼았고, 그곳에서 은밀하게 미사를 드렸으며, 죽으면 그곳에 묻혔고, 이 카타콤베 내부의 벽면이나 석관 부조 위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나 믿음의 증표를 상징하는 그림들을 그렸다.

그중 한 주제가 착한 목자였고, 착한 목자 그리스도는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그렸다. 이것은 헬레니즘의 전통적인 목가적 형상으로 등장하는 목자들의 모습이 ‘착한 목자’의 존재와 겹쳐진 형태로, 영원한 젊음으로써 신성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필리프 드 샹파뉴(Philippe de Champaigne, 1602-1674)도 착한 목자 그리스도의 전통을 따라 목가적인 풍경과 함께 착한 목자 예수님을 그렸다.



〈착한 목자〉, 필리프 드 샹파뉴

예수님께서서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푸른색 긴 튜닉을 입고, 안에는 붉은색 옷을 입으셨다. 푸른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사랑을 상징하기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착한 목자가 되시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목자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쥐고, 왼손으로 양의 네 다리를 꼭 잡고 있으며, 잃었던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 예수님의 얼굴과 양의 몸이 한 몸처럼 붙어 있어 둘 사이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강렬한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세상에 오신 착한 목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세상 어떤 권력과 위협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앗아갈 수 없도록 약속하신다. 예수님의 발밑에는 가시나무가 있어 그분께서 가실 길이 가시밭길을 암시하고 있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박물관〉

인류 가족을 이루라는 부르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59차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곧 하느님과 세상에 귀 기울이는 교회라는 맥락 안에서 ‘성소’의 더 넓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성찰하고자 합니다.

모든 이가 교회 사명의 주체가 되라는 부르심

함께하는 여정인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는 교회의 본질적인 성소입니다. 이러한 지평 안에서만 다양한 성소와 은사와 직무를 식별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 바깥으로 나가며 역사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사목 활동의 모든 영역이 다 함께 어우러져 일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주님의 모든 제자를 참여시킬 때에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은 그들이 받은 세례에 힘입어 선교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마태 28,19 참조). 세례받은 모든 이는 교회 안의 역할이나 신앙 교육의 수준에 상관없이 복음화의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120항).

서로의 보호자 그리고 피조물의 보호자가 되라는 부르심

‘성소’라는 단어를 그저 특별한 축성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한정을 지어 이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분열된 인류를 다시 하나로 만들고 인류가 하느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이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생명이라는 선물과 함께 근본적인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고 사랑하셔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느님 마음 안에는 우리 저마다가 차지하는
유일하고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이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제59차
성소 주일

2022년 5월 8일

여러분도 그들 기온테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로마 1,6)

비밀 가입 문의 02-2268-7103
E-Mail pensik@pensik.net

교황청 선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ium Missionum Koreae

**이 거룩한 불꽃을 키워서,
사랑과 상호 수용에 힘입은 인류의 성장에
이바지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가 되라고, 화합과 나눔의 유대를 강화하라고, 피조물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지 않도록 피조물의 상처를 치유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피조물의 눈부시게 훌륭한 공동의 집에서, 그 구성 요소들의 조화로운 다양성 안에서 단 하나의 가족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도 ‘성소’를 가집니다.

형제적 세상을 이루라는 부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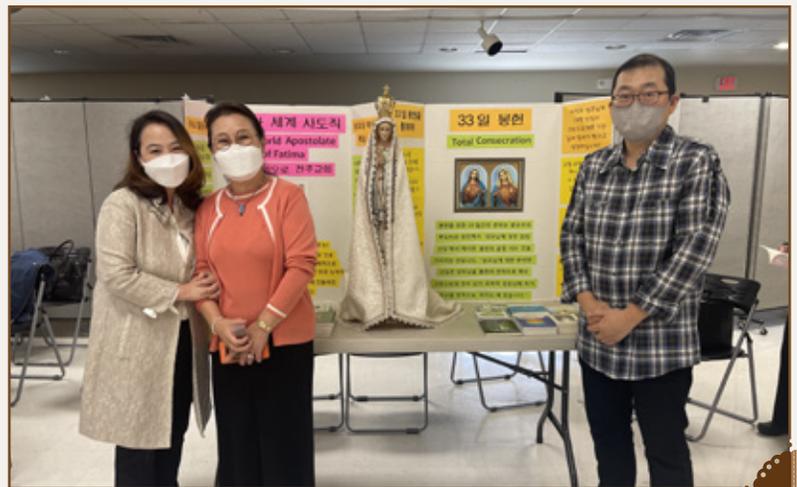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개별적으로만 성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모자이크를 이루는 조각들과 같습니다. 각각 그 자체로도 사랑스럽지만 모두 함께 모여 있을 때에만 하나의 그림을 이룹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 마음에 있는 별처럼 그리고 우주 창공에 있는 별처럼 빛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시작하여 인류의 길을 이끌고 비출 수 있는 별자리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다름의 향연 안에서 인류가 부름받은 모든 표징이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교회는 더욱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조화로운 다양성 안에서 일치하여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이가 이바지할 몫을 지닌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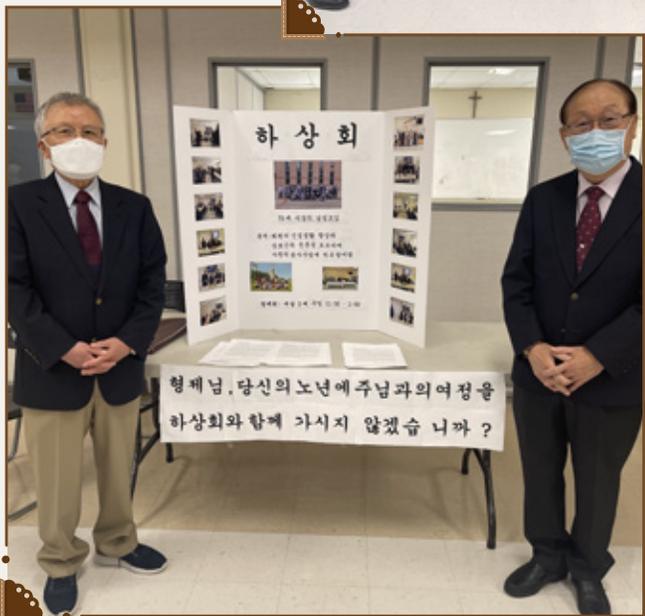
형제자매 여러분,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느님 백성이 이러한 부르심에 더욱 잘 응답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 위대한 하느님 계획 안에서 우리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찾고 최선을 다하도록 성령의 빛을 청합니다!



2022년 단체 홍보의 날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 5월 1일(일) -





1 2차 현금

- 이번 주일은 본당 시설 개선 및 도서실 책 구입을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제83차 예비신자 입교식

- 일시 : 5월 8일(일) 오전 8:30 (하상관 #110)
- 문의 : 이인표 가브리엘 (703) 851-2364

3 단체장 회의

- 일시 : 5월 8일(일) 오전 11:40 (A-1,2)

4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5월 8일(일) 오후 1시 (B-3,4)

5 유아 세례

- 일시 : 5월 14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5월 15일(일) 오전 11:40 (B-3,4)

7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5월 15일(일) 오전 11:40 (A-1,2,3,4)

8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5월 15일(일) 오전 11:40 (하상관 #4,5)

9 베드로회 월례회의

- 일시 : 5월 15일(일) 오전 11:40 (B-1,2)

10 베드로회 자매 모임

- 일시 : 5월 20일(금) 저녁 8시 (A-1)

11 성령 기도회 모임

-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미사 후 (도서실)

12 대학 진학 학부모 세미나(교육부 주관)

- 일시 : 5월 15일(일) 오후 3시 (B-3,4)
- 내용 : 대학 진학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 대상 : 학부모
- 강사 : 구아름 데레사 학교 상담사

13 성인 견진성사 신청

- 서류접수 : 5월 8일(일) - 5월 15일(일)
- 준비서류 : 견진 신청서, 영세자 증서, 혼인 증서
- 견진식 : 6월 5일(일) 오후 2:30 (알링턴 교구 주교좌 성당)
- 문의 : 선교부 (703) 851-2364
사무실 (703) 968-3010
- 견진 교리 : 5월 20일(금), 27일(금), 6월 3일(금)
저녁 미사 후에 있습니다.

14 ME 주말 부부

- 일시 : 5월 28일(토) 오후 7시 - 30일(월) 오후 5시까지
- 장소 : 헌팅톤 수도원(롱아일랜드, 뉴욕)
- 접수 : 친교실
- 문의 : 김영술(아놀드), 레지나 부부 (703) 477-2435

15 2022 CYO WorkCamp Contractor 봉사자 모집

- 봉사 기간 : 6월 19일(일) - 6월 24일(금)
- 알링턴 교구 WorkCamp에 함께 봉사할 컨트랙터를 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244-0333
사무실 (703) 968-3010

16 CYO WorkCamp 기금을 위한 Car Wash

- 일시 : 5월 1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 장소 : 하상관 주차장
- 가격 : \$15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 미사 봉헌 전에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세차해 드리겠습니다.
- 5월 1일(일) Car Wash에 함께 해주시고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7 혼인 갱신식

- 일시 : 6월 12일(일) 10시 미사 중
- 대상 : 25, 30, 40, 50, 60년
- 신청 마감 : 5월 29일(일)까지
- 문의 : 김영술(아놀드), 레지나 부부 (703) 477-2435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5월 1일(부활 제3주일)

주일 현금	\$ 7,383.39
교무금	\$ 7,125.00
교무금(신용카드)	\$ 3,050.00
감사 현금	\$ 190.00
온라인 봉헌	\$ 1,790.00
합계	\$ 19,538.39

♥ 주일현금 및 2차 현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5월 12일(목) 오후 5:00-6:00
- 5월 13일(금) 저녁 8:00-9:00
- 5월 15일(일) 오전 6:00-7:00

1. 성정바로 성당 주일 미사 강론
2. 특강 : 김진태 안드레아 신부님의
“하느님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종합예술의 결정체 바로크 양식
- 베드로 대성당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1974 - 2024

Year One(2021.11.21 시작) **“Remember”**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r> <tr> <td></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